

자기가 조금 밀지더라도 돌로 보지 말고 행해야

29면에서 계속

말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역대 조사들도 "만약에 너희가 바깥으로 만날 칠성 독성 산신을 찾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요, 바로 마구니가 말하는 것이니 마귀에 빠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돌로 보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말로 한데 떨어져서 마구니로 이끌어 가는 길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아무리 이론으로도 무불통지해서 설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돌로 본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소굴이다. 그리고 공덕이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말을 해도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말을 할 때는 입력이 돼서 에너지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와 우리가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주는 게 있고 낮에 받는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거 한 마디만 해도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혼은 다 뺏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속에 큰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바깥에 있는 쇳덩어리라고 하는 쇳덩어리는 다 여러분 자석에 붙어 들어오지만 여러분의 자석이 작다면 그 조그마한 내 자석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다 떼어 가서 버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에너지와 모든 혼을 뺏기니 빈집에서 무슨 되는 노릇이 있겠습니까?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든 것이 귀들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데서 실천을 하고, 실천하는 데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항상 남한테 기대는 마음, 남을 믿어서 보종이나서 주는 마음, 남을 믿어서 속거나 하고 망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속고 속이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항상 살아나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집이 비었으니 말입니다.

또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미생물의 모든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저거 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선한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따라 주기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중 가운데서: 이해 갑니다.

▲스님: 네. 지금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런 벌레들도 좋고 나쁜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막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을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는 않아도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고 뺏기고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지배인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인간은 좋고 나쁘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좋고 나쁘고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모르는 모든 중생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화해중생입니다. '상구부리 화해중생'이라는 이 자체를 먼저 알아야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통이 속의 생명들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음이, 좋고 나쁜 거를 아는 마음이, 나라는 아집과 착, 이런 거를 다 놓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교를 믿을 때 울바로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 풀 한 포기만 남아도, 아니 흙만 있어도 불교는 있는 겁니다. 우리 그네 가지로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에 가면 물이 참 좋고 산천초목을 보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지 않죠? 그렇게 신선하고 좋죠! 여러분의 고향이니까 그렇습니다. 억만 년을, 수억겁을 거쳐 왔다 하더라도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천초목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들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의 정신, 혼, 이런 걸 뺏기고 뺏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뺏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통이 속에 식구들을, 악업 선업의 인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다스리는 마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

이 바로 중생을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십이승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 와서 '날 좀 살려 주시오' 하면 돌이 아니게 한마음을 내서 바로 건져 주고 내가 돼 주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 한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 세상에 모두가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바로 끝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기어 다니는 조그마한 벌레가 땅을 딛고 있는 그 발도 내 발이기에 바로 평발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뽕뽕하게 잘라져서 평발이 아니라, 벌레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들자 가슴이 웃고 한 마음이 돼 버렸습니다. 꽃 한 송이 들 때와 가슴이 웃을 때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돌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아가서는 그 꽃을 들고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모두가 한자리요, 한몸이라는 뜻을 일러 주셨습니다. 말없이 일러 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뜻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음, 한마음입니다. 아집이라는 마음, 착이라는 마음 그걸 다 다스리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행동,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써, 자기가 조금 밀지더라도 돌로 보지 말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다 할지라도 고정되게 나쁜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도 고정되게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모를 때의 내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어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형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자식 내 부모로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골 무더기에서 큰절을 했죠. 그러니까 "사생자부인 어버이신데 어찌 하잖은 해골에다가 큰절을 하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애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는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저기 가서 구름처럼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억겁을 거쳐 나왔어. 그러니 저 해골이 우리 할머니 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절을 안 하겠느냐." 하니 "미처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부모 내 부모가 없고, 네 자식



그림 · 최주현

내 자식이 없고, 네 형제 네 형제가 없는 까닭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질단 모이듯 한 식구가 인연 따라서 그릇대로 모였다가 또 사대로 흩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차원대로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부모도 내 부모였습니까? 만약에 저리로 돌아가서 또 내 부모가 됐다면 어떡하렵니까? 그렇게 수없이 거듭 거듭 돌아가면서 거쳐 나왔으니 내 부모 아닌 게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라! 준다고 해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없으면

서로 나누어 쓰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누어 쓰는,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절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말만 공산주의의 행동은 독재요, 사회주의요, 마음을 평등하게 쓰면서 그냥 사는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다음 호에 이어서)

*위 법문은 1991년 8월 11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멘트 법당 스님! 내년에 지으실 법당 건축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형제작과정



본 건축자재는 법당 평수에 따라 수공 제작됨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공된사찰



설계에서 시공까지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특징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 섬세합니다/ 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본사 및 전시장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86-4대웅빌딩 2층
서울대표전화 : 02-494-4890~1
상 담 직 통 : 011-9228-6814
영남 (대구) : 053-983-0357
상 담 전 화 : 011-9582-4689

